



# 익숙한 제주 안에서 새로움을 엿보다

미술동인 집 정기전  
올해로 25번째 개최  
이달 3일까지 이어져  
문예회관 제3전시실

붉은 동백꽃을 피어낸 나무들이  
마치 숲을 이룬 듯하다. 그러나 그  
거대한 모습이 강하고 역세기보다  
따뜻하고 포근하다. 그림 속 한낱  
작은 존재인 여성도 이를 편안히  
바라본다.

주로 자연물을 화폭에 담고 있  
다는 이정숙 작가는 제주 자연과  
의 ‘공존’을 말하고 싶었다고 했  
다. 동백꽃이 피고 지는 서귀포의  
한 마을에서 건진 동백나무를 소  
재로 한 그의 작품에는 ‘바라봄의  
-시작’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 작가는 “자연은 거대하지만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  
해진다. 숨을 느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제주의 일상적인 풍경이



이정숙 작가의 '바라봄의-시작'.

미술동인 집 제공

사라지고 있어 아쉽다. 매년 스케  
치했던 장소인데 다음에 가보면  
(원래 있던) 나무가 없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달 3일까지 제주도문예회관  
제3전시실에서 이어지는 ‘미술동  
인 집’의 정기전에는 이렇게 누군  
가의 제주가 존재한다. 모두 13명  
의 작가가 ‘제주 이야기’라는 하나  
의 제목으로 다양한 시선과 예술세

계를 꺼내놨다. 강금실 고민철 고  
인자 김복신 김수연 김숙희 김애란  
김용환 이정숙 좌경희 최선영 한용  
국 현민자 등이 참여했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제주는 사실  
적이기도, 때론 새롭기도 하다. 성  
산일출이 자리한 고인자의 ‘시간  
의 바람’도 현실인 듯 아닌 듯 오  
묘한 색채로 내면세계를 풀어낸  
다. 고민철의 ‘제주적추상-바다’



고인자 작가의 '시간의 바람'.

미술동인 집 제공

는 추상이란 개념으로 작가의 속  
마음에 다가선다.

미술동인 집은 이번 전시를 통  
해 “제주가 지닌 자연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 풍광 속에서 살아  
가는 사람들의 기억과 감성, 그리  
고 각 작가가 만들어 가는 자신만  
의 예술세계를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익숙한 제주를 다양한 시선  
으로 만나고 저마다 품고 있는 기  
억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전시는 미술동인 집의 25  
번째 정기전이다. 제주대 미술학  
과 서양화 전공 출신들의 모임으  
로 매년 정기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국민화가’ 이중섭, 사후 30년의 기록

서귀포공립미술관서 2일부터  
1956-1986년 예술세계 조명

‘국민화가’ 이중섭의 사후 30년의  
기록이 한 데 모인다. 서귀포공립  
미술관이 이달 2일부터 여는 ‘이  
중섭 아카이브 전시 5부: 1956-  
1986년’ 전이다.

전시는 이중섭이 눈을 감은  
1956년을 시작점으로 했다. 그 이  
듬해인 1957년 첫 유품전시 기록



이중섭 아카이브 전시 5부  
포스터.

여 점을 통해서다.

부터 1986년  
30주기 특별  
전까지의 시  
간 속에서  
국내 대표  
화가로 자리  
매김하는 과  
정을 따라간  
다. 주요 자  
료와 작품  
이미지 등 70

전시에선 1972년 ‘15주기 이중  
섭 작품전’ 전시 포스터도 만날  
수 있다. 당시 하루 500명 넘는 관  
람객이 몰려 기간을 연장할 만큼  
문화계에 큰 화제가 됐던 전시다.  
이중섭 추모 열기가 대중문화 전  
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1974년 제작 영화 ‘이중섭’ 자료  
도 전시된다.

이남덕 여사가 간직하던 엽서화  
88점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던  
1979년 ‘미공개 이중섭 작품전’,  
같은 해 상연된 연극 ‘화가 이중  
섭’ 아카이브 자료도 자리한다. 이  
런 흐름의 마지막 지점에는 1986년

호암 갤러리 특별전 ‘30주기 특별  
기획 이중섭전’의 자료가 놓인다.

전은자 이중섭미술관 학예연구  
사는 “이번 전시는 이중섭 사후  
그를 추모하는 특별전시와 각종  
장르의 예술 작품이 창작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인지도  
가 높게 형성되는 과정을 알 수 있  
는 전시”라고 설명했다.

전시 5부는 2024년 시작된 ‘이  
중섭 아카이브 전시’의 마지막 이  
야기다. 내년 1월 31일까지 이중섭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계속된다. 관련 문의는 064-760-  
3567, 3561.

김지은기자

함께 만나는 ‘첫 여름, 완주’  
탐라도서관, 배우와 함께 낭독

탐라도서관이 류태호 배우와 함께  
하는 낭독 클래스 참여자를 모집  
한다.

함께 읽을 책은 김금희 작가의  
‘첫 여름, 완주’다. 이 책은 시각장  
에인도 즐길 수 있는 ‘듣는 소설’  
프로젝트로 기획된 작품이다.

배우의 낭독을 따라 책을 읽고,  
목소리와 감정을 통해 텍스트를 새  
롭게 만나볼 수 있다. 서로의 생각